

한국어

하나님의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지구에 주입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불행의 시작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이유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 태어나보니 잘못을 저지른 인간으로서 그 운명 자체가 갇힌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성경에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의 자손.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상관없이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사탄에 의해 운명이 잡힌 채 태어난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된 고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실수한 것이 보이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런 고통이 정신적으로,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늘 걱정. 일이 잘 안 되면 두렵습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을 일으키고, 뒀가에 묶인 듯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악령에게 눌러 있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놀려 있습니까? 마음이 놀려 버렸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생활의 고통

육체적, 생활의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생활에 따른 고통, 환경적인 고통도 생활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딘가 아픈 것도 생활에 따른 고통,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잘 되지 않는 것도 생활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생활의 문제가 계속되어 인간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신들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나무를 깎고, 쇠를 녹여서 인간이 찾아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대해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확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아니다"라고. 그것을 숭배하면,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재앙, 저주가 당신의 가문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이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일시적인 방어로 자신의 결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만 많이 벌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지구에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물질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악마의 자녀는 악마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죽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고향은 흙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처럼 조금씩 사라집니다. 80, 90,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이 흙에서 이 말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 고통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불행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3, 4대의 자녀가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낳은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합니다. 본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도 다음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았는지 나았지 않았는지, 사업이 잘되었는지 잘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다음 문제입니다. 왜 다음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의 문제가 기원이 됩니다.

해결의 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행복해지는 답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을 받으며 죽습니다. 70세까지 살았다 해도, 100세라도, 그 고통을 받으며 죽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공허의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존재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칼을 꺾으신 진정한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3가지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만났다면, 이 고통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이 모두 기계가 됩니다. 모든 것이 토대가 됩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그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로마서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대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나의 운명이 사탄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얽매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나다. 당신의 모든 저주 죄가 끝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칼을 내가 꺾어 놓았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돈을 도와줬다면,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의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주거나 만져주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움직여도 이미 눌러 있어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의해 움직이려 해도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뭔가 우울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씨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날. 왠지 기분이 다운되어서 뭔가 우울합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일할 때 놀립니까? 아니요, 악령이 일할 때 놀립니까? 성령이 일할 때 놀립니까? 아니요, 악령이 일할 때 마음이 눌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악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나가라고 말하면 나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악령은 떠나갑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지십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의 길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내 인생의 길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영성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혼란도 위험도 칼도 악의 마음도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진 문제, 그리고 사탄의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탄을 부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2장 2-3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도 모두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모든 것이 토대가 되어 모든 것이 땅에 변한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죽음의 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후,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저주와 비난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방된 길을 전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계속 저주를 말하며, 잘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탄을 제거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전해주면, 보고,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후, 끝이 옵니다.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잡고 전해져 온 그런 가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가문에는, 역대상 27장 29절입니다. 사바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바테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아버지입니다. 사바테라는 이름은 엘리사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데라이라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사바테는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큰 재산가입니다.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신앙이 있었습니까? 내 관리하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 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레므넛트들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여러분의 실력만이 아닙니다. 신앙과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레므넛트들은 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이 준비만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레므넛트 아이들,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 가문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신앙의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엘리야에게 아벨의 사바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무한자가 될 것이라고. 엘리사는 그때 다윗 왕의 소나 돼지를 통해, 계속 논을 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지명한 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사자로, 또한 교사로 부르십니다. 종사자로, 회사장으로, 또한 집사로, 장로로, 부문장으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또한 엘리사가 돼지나 소를 통해 논을 키우고 있는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명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쓰이는 때입니다. 가르칠 때 쓰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때입니다.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증명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증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21절. 엘리야가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부여, 내 대신 예언자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은 24마리를 가지고 나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본 순간 도구를 부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말하고,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도구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소 두 마리를 죽이고, 마을의 사람 모두를 불러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를 열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물만 찢어져, 베드로는 무리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형이었던 안드레의 배도 모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자기 형이었던 안드레에게 맡겼습니다. 엘리사처럼 도구를 부수고 따라가야 합니다. 배를 부수거나, 배를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형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려고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소를 죽이고, 또 도구를 부수고, 완전히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순종자입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모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종사자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중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데려가시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 당신이 나를 따르기 전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두 배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 하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은 왜 믿음이 붙거나 떨어지나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을 때, 단지 통로와 불신으로 내 감정이 생기고, 내 기분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엘리

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충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자였습니다. 또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날 이후로, 주의 영이 강하게 내렸다"고. 성령 충만. 이 지구상에 왕 같은 왕은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도록,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사를 계승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되십시오. 올바른 언약 전달을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불의 수레와 불의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갔습니까? 예녹. 우리 교회에도 좋은 예녹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 불안과 불평등 속에서, 불의 수레와 불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육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엘리사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데라이라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사바테는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큰 재산가입니다.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신앙이 있었습니까? 내 관리하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 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레므넛트들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여러분의 실력만이 아닙니다. 신앙과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레므넛트들은 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이 준비만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레므넛트 아이들,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 가문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신앙의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엘리야에게 아벨의 사바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무한자가 될 것이라고. 엘리사는 그때 다윗 왕의 소나 돼지를 통해, 계속 논을 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지명한 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사자로, 또한 교사로 부르십니다. 종사자로, 회사장으로, 또한 집사로, 장로로, 부문장으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또한 엘리사가 돼지나 소를 통해 논을 키우고 있는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명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쓰이는 때입니다. 가르칠 때 쓰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때입니다.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증명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증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21절. 엘리야가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 내 대신 예언자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은 24마리를 가지고 나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본 순간 도구를 부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말하고,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도구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소 두 마리를 죽이고, 마을의 사람 모두를 불러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를 열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물만 찢어져, 베드로는 무리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형이었던 안드레의 배도 모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자기 형이었던 안드레에게 맡겼습니다. 엘리사처럼 도구를 부수고 따라가야 합니다. 배를 부수거나, 배를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형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려고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소를 죽이고, 또 도구를 부수고, 완전히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순종자입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모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종사자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중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데려가시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 당신이 나를 따르기 전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두 배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 하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은 왜 믿음이 붙거나 떨어지나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을 때, 단지 통로와 불신으로 내 감정이 생기고, 내 기분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엘리

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충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자였습니다. 또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날 이후로, 주의 영이 강하게 내렸다"고. 성령 충만. 이 지구상에 왕 같은 왕은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도록,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사를 계승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되십시오. 올바른 언약 전달을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불의 수레와 불의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갔습니까? 예녹. 우리 교회에도 좋은 예녹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시다. 올라갔습시다. 두 번째, 엘리사. 불안과 불평등 속에서, 불의 수레와 불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육체로 올라갔습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습격하지 않았습시다. 아람의 위협을 받았습시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도단의 운동이 일어났습시다. 결국, 아람 군대를 완전히 파괴했습시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소문이 전해졌습시다. 어떻게 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을 막습시다. 또 지역의 재앙도 막습시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문이 열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번 주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구하도록 바랍니다. 내 가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